

외불산 정상 표지석 설치

함양군 도움으로 정식명칭 지도에 올려

경남 함양 휴천면 견불 사에는 아주 특별한 부처님이 봉안돼 있다. 전체 길이 4km, 해발 1161m 산 정상에 봉안된 부처님은 견불사 동쪽 지리산 자락에 나투어 도량 전체를 감싸고 있다. 바로 지리산 상내봉을 따라 이어진 천연외불산 능선이 전제로 불상인 것.



9월 24일 외불산 표지석 설치 후 보덕 스님의 모습.

견불사 주지 보덕 스님은 창건 당시 외산 중인 부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한 이 불상의 이름을 '외불산'이라 하고, 많은 불자들에게 무언설법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힘써왔다. 함양군의 도움으로 '외불산'을 정식 명칭으로 지도에 올랐고, 9월 24일에는 산 정상(해발 1161m)에

표지석을 설치했다. 보덕 스님은 "오탁악세에 중생들의 흐린 마음을 정화시켜 줄 천연외불이 훼손되지 않고 대대손손 전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외불산 표지석은 외불산의 꼭 부분에 위치하며, 노장대 할양 목 바위를 거쳐 상내봉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익산 국립박물관 승격 건의

전북의회, 고도 지정도시 중 익산 소외 강조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리모델링 계획이 공개됐지만, 지역의 국립박물관 승격 요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의장 최전욱)는 9월 25일 익산시청 상왕실에서 제148차 월례회를 열고 김병욱 익산시의회의장이 제안한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건의안'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했다.

또,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건의안에는 그동안 미륵사지 발굴 조사로 2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고 국보급 사리장엄구가 발굴된 만큼, 익산 미륵사지의 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켜줄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된 고도특별조치법에 의해 고도로 지정된 경주 부여 공주 등 4개 도시 중 익산만이 국립박물관이 없는 사실을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불모지 포교사찰로 거듭

광산구 길상사 본존불 점안법회 봉행

광주불교의 불모지라 일컬어지는 광산구의 길상사(주지 도제는) 9월 26일 본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포교사찰로 거듭났다.

이날 법회에는 자경 스님(금봉사주지)을 비롯해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자경 스님은 법문에서 "포교의 어려움은 매우 크다. 절의 모든 대중

들이 나서 부처님을 친견하듯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면, 그것이 참다운 포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길상사와 함께 송광종합복지관 관장 소임을 맡게 됐다. 대중들과 같이 발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불사 위한 열가지 조항 제정

남원 실상사, 10월 10일 '불사십조 잔치' 개최

바람직한 사찰불사를 위한 열 가지 조항이 처음으로 제정돼 눈길을 끈다. 남원 실상사(주지 재연)는 10월 10일 '실상사 선연 - 불사십조(佛事十條) 잔치'를 개최한다. 실상사는 2008년부터 바람직한 도량불사 세미나를 개최하며, 불사의 성찰과 방향과 제안, 불사에서 답아야 하는 21세기 시대정신 등을 고민해왔다.

'불사십조'는 네 차례에 걸친 도량불사 세미나를 통해 축적된 반성과 성찰을 모아 정기용 건축

가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불사십조'는 △연기적 세계관의 불사 △생명살림의 불사 △공동체를 살리는 불사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는 불사 △대중적 협동의 불사 △자연과 풍경을 배려하는 불사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불사 △고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불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사 △지속가능한 생태적 불사 등 10가지이다. 재연 스님은 "한국 전통사찰의 모든 불사에는 불교의 기본적 세계관과 시대정신을 담아 오랫동안

안 아름다움의 맥을 이어왔다"면서 "요즘의 절 불사는 방향을 잃었을뿐더러 자칫 선조가 이룬 문화유산을 우리 세대에서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연 스님은 "잘못된 불사가 우리 역사 문화와 불교의 앞날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크게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불사의 올바른 방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상사 불사를 실천적으로 추진하고자 불사십조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추석맛이 복운축제' 개최

고창군복지관, 다채로운 문화행사 열어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궁)은 한가위를 맞아 9월 29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이강수 고창군수 등 40여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009추석맛이 복운(福運)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풍년을 기리는 고창초교 공예단의 진도복춤 공연과 여성국악그룹 다스름과 함께하는 국악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또,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장기 바둑, 율농이 대화와 고창경안어린이집 30여 원생이 참석해 질로 만드는 공예품 만들기, 전통연 만들기, 차(茶)나눔터, 떡매치기 체험 등을 통해 전통놀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9월 29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복운축제 모습.

무궁 스님은 "올 한해 농사일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오늘만큼은 복지관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공연을 마음껏 즐기는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KT&G복지재단은 햅쌀(50포) 및 보행보조기(12대)를, 한국전력공사 고

창지점은 추석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26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구성원간의 친밀감과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행사는 경제적·심리적·정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며 저소득 위기가정이 지역사회

의 건강한 성원으로 생활하도록 돕고자 마련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흔 세대가 동참한 이날 프로그램은 서로 편집장과 기자가 왜 가족의 자랑과 꿈 등을 소재로 가족신문을 만들고 빙고게임 등을 통해 가족구성원간의 친밀감과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무궁 스님은 "최근 가족이 함께 보낼 기회가 부족해 가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참여한 가족은 행사 전 과정이 영상으로 제작돼 가족간의 변화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종합복지관 관계자는 "6개월의 캠프진행기간 동안 부모-자식간 소통 결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신속한 개입을 할 것"이라며 12세대의 캠프참가 가족의 소통부족에서 오는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구 '불교사상'으로 치유 합니다"

우리지역 부루니존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공동대표 법일 스님

환경재단에는 환경파괴 정도에 따라 인류생존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환경위기시계'가 있다. 올해는 9시 33분이다. 이 시계의 12시가 되면 인류가 생존이 불가능한 시간이 된다. 최근 10년간의 사회운동은 환경운동이 주도한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이었다.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는 이런 환경속에서 불교의 사회화와 대중화를 목적으로 창립했다. 상임공동대표 법일 스님(완도 신흥사 주지·사진)은 이 단체를 이끄는 리더이다.



다. 환경운동을 통해 진보적 불교활동 단체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 스님은 현재 여러 개의 직함을 갖고 있다. 백양사 부주지, 완도 신흥사 주지, 완도 시민연대 상임대표, 장

보고아카데미 대표 등. 요즘 법일 스님이 정성을 들이고 있는 사업은 '장보고아카데미'이다. 장보고아카데미는 문화적으로 소외계층인 섬 아이들의 교육, 문화, 복지에 대한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단체이다. 특히 백일장대회, 한문교실, 다도, 도예, 도시문화체험 등을 10여년 넘게 진행해왔다. 지난 여름에는 완도의 섬아이들과 같이 중국 산둥지역 장보고유적탐사를 다녀와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의 섬지역은 불교세가 거의 없다. 여기에 지자체들은 종교편향이 끝이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에서 특히 호남의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스님의 역할이 더욱 빛나는 것이 이때문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적 책임감이 커지더군요. 수행자의 본분대로 살아간다면, 어느 곳 어느 때나 당당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불교적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불교적 사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중 환경문제는 지구적인 문제이자 앞으로 닥칠 현실의 문제입니다.”

법일 스님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됐다. 현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2008년 4월 창립 후 1년 만에 많은 주목받는 사업들과 후원구조를 만들어냈다. 환경법회, 어린이 생태학교, 자비의 쉼나누기, 한지공예전 등 광주지역 불교활동가에게는 익히 알려진 사업들을 떠나가고 있다.

법일 스님이 처음부터 환경을 비롯한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어릴 때 출가를 했기에 사회적 관심이나 역사적 문제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5·18 광주민중항쟁과 10·27법난도 겪었고요. 그때까지도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큰 변화는 1986년 중앙승가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시

www.beomeo.kr

개산문예대제전

선찰대본산 범어사 개산 1331주년 기념

올해로 개산1331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의상스님께서 금정산에 범어사를 창건하신 것은 나라를 위하고, 만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큰 원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상스님의 깊은 뜻을 오늘 다시금 되새기며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기원하여 봅니다.

올해 개산문예대제전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박하고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대신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모두가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가을 코스모스처럼 함박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기 2553년 10월 좋은날
범어사 주지 정여 합장

불기 2553(2009)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 행사일정

내 용	일 시	장 소
개산대제	10월 10일(토) 15:00	대웅전 앞
산사음악회	10월 10일(토) 18:00	대웅전 앞
범어사 대웅전 단청문양 모사도 특별전	10월 10일(토) 16:30	성보박물관
청소년 및 가족 사진대회	10월 10일(토) 13:00	성보박물관 앞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사경	10월 11일(일) 10:00	대웅전 앞
전시 및 체험 (판매부스)	10월 8일(목) ~10월 11일(일)	지장전 앞, 성보박물관 앞
다도시연	10월 11일(일)	11:00 (KAB)국제치문회진흥연구회
		14:00 대웅전 앞 (범어사 다도회)
시상 및 회향	10월 11일 15:00	성보박물관 앞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TEL. 051)508-3122 ~5 FAX. 051)508-3229